

제 45 호 문화적 장애 1

문화적 장애는 가능성이 있는 풀이 방법이나 경로를 미리 제외시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교 신입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을 강의할 때의 일입니다. 참석하신 교수님들께 “여기 케이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단 세 번의 칼질로 케이크를 8등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앞에 허깨비 케이크를 상상하고 손으로 열심히 칼질하는 교수님이 여기 저기 보이더군요. 1-2분 후에 두 분의 교수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한번, 두 번은 위에서 아래로 (가로로) 자르고, 세 번째는 옆으로 (세로로)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을 내신 두 분의 교수님들은 미국 태생 교수가 아니라 중국계 유학생 출신 교수였습니다.

미국인 교수들은 두 번 놀라워했습니다. 답이 너무나 “몰상식“해서 한번 놀라고, 답이 너무나 당연해서 두 번째 놀랍니다. 아니 미국서 어느 몰상식한 인간이 생일 케이크를 가로로 자릅니까! 그러나 케이크 자르는 문제를 단순한 기아학적 문제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미국인 교수가 머리가 나빠서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문화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케이크를 옆으로 자를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안 했던) 것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떡을 옆으로도 자르는 모양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풀이 방법이나 경로를 미리 제외시킨다는 문화적 장애는 한 나라의 전통과 생화습관 내지 사고방식에서만 비롯하니 않습니다. 모든 집단은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대학의 수평적 문화, 군대의 수직적 문화를 비롯하여 기업, 정부, ngo 등 모든 조직체는 서로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체 (문화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한계에 부딪칩니다. 문화적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폭넓은 분야의 인재들이 함께 모여 팀웍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잔소리 코너>>

교육부와 교육단체 사이가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에 대한 문제 풀이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교육부 관료 체질과 교육자 체질(문화)이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모두 애꾸눈인 셈이지요. 그

래서 한국의 교육이 발전하자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두 눈 부릅떠야 하겠습니다.

다음 호에는 공대에서는 어떤 문화적 장애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벽, 1999